※日本語は下にあります。*English is below.

신도 후유카 기획서

홋카이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광주의 지구발전오라(D.A.Aura)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제 프로젝트에 조언을 해주실 분들과 함께 참여해주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Fuyuka Shindo WEB: https://www.shindofuyuka.com

연락처: https://www.shindofuyuka.com/contact

나의 계획

이번에 저는 일시적으로 광주에 머무는 사람으로서, 광주에서 데이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데이트는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 맺기이지만, 동시에 두 사람이 함께 도시라는 공적인 장소로 나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사이를 오가는 것. 그 사이의 폭이 이 기획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지는 지금은 아직 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데이트를 거듭하면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데이트에서는 저 혼자 어디에 갈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정해지는 상호적인 것입니다. 특히 외부에서 온 저에게는 어디에 가고 무엇을 할지를 상대방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제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시선에 이끌리며 도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가능한 한 많은 데이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데이트를 거듭할 때마다 개인적인 추억과, 도시를 무대로 어디에 가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경험이 제 안에 쌓여갈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광주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을 어떻게 바꿀지, 혹은 바꾸지 않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데이트'는 반드시 연애나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좀 더 가벼운 것입니다. 두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장소나 활동을 접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데이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여행자처럼 시내 투어에 참가하기보다는,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광주를 알고 싶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이번에는 데이트라는 형식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데이트는 기본적으로 조금 특별하고 즐거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특별한 장소나 좋아하는 활동을 소개받고, 그곳에 함께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참가자의 성적 지향이나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어쩌면 상대가 개나 고양이도 좋을지 모릅니다. 영어 또는 일본어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말이 충분히 통하지 않는 상황까지 포함하여, 어떻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미술관에 가거나 산책을 하거나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개를 산책시키기, 슈퍼마켓에서 장보기, 가족을 만나러 가기, 성묘하기 등 다양한 데이트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트의 내용이나 그 경험을 어떻게 기록할지는 참가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정하고 싶습니다. 사진이나 대화, 개인에 관한 정보 등을 웹에 소개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기록하지 않는 것, 혹은 두 사람 사이에만 남는 경험까지 포함하여 이 기획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활동 과정은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제가 직접 기획하는 데이트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것이 될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경험을 쌓아가면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지원 요청 (D.A.Aura 또는 다른 분들께)

광주에서 데이트를 할 상대를 찾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참여해주실 분을 찾거나 소개해주시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체류 기간 동안 7~8회 정도 데이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다양한 세대, 성별, 생활 배경을 가진 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같은 분이 여러 번 참여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참가자에게 이 기획을 어떻게 설명할지,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경우 어떻게 소통할지, 교통비나 식비 등의 비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상의하며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에 가기 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저는 작년에 후쿠오카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고, 그때 후쿠오카와 아시아가 가깝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거리상의 가까움이기도 하지만, 이웃한 아시아를 바라보는 감각이나 이해의 해상도가 다른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배경에는 역사적, 문화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홋카이도에서 느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홋카이도 역시 같은 아시아에 있으니 무언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시아가 하나의 단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제적인 감각으로 느낀 경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험을 계기로 레지던시가 끝난 뒤 후쿠오카—나하—타이베이—서울—부산을 한 바퀴 도는 여행을 했습니다.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와 각 지역의 민주화에 관한 박물관 등을 주로 찾아다녔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아시아를 둘러싼 저의 리서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빠르게 돌아다니며 각 지역에서 경험한 것들은 지금 제 안에서 서로 뒤섞여 있습니다. 각각 독립된 지역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식민지화와 민주화를 둘러싼 역사와 기억이 서로 겹쳐져, 아직은 흐릿한 상태입니다. 아시아는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행을 하고 나니 오히려 그 초점이 더 흐려져버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감각이 앞으로 리서치와 작업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해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 광주에 머무는 것은 아시아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민주화 역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제가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자로서, 그리고 일본인으로서 한국의 민주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 우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조차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얻어,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감각입니다.

리서치의 방법으로서 책, 소설, 작품, 영화 등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미디어와 표현들이 있다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미리 그런 것들을 접해볼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광주에서는 가능한 한 도시 곳곳을 둘러보고 싶습니다. 또한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무엇을 즐기는지, 그러한 일상적이고 친밀한 상황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우회로를 거치면서 광주에 가까이 다가가보고 싶습니다.

도시를 걷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민주화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더라도 어딘가에서 그 역사나 기억과 접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전혀 다른 무언가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저에게 어떤 기회가 될지는 그때가 되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 알 수 없음 자체를 남겨둔 채 광주에 머물러보고 싶습니다.

進藤冬華企画書

北海道をベースに活動するアーティスト。10月の1ヶ月間、光州のD.A.Auraにてレジデンスに参加します。私のプロジェクトにアドバイスをいただける方と参加者を探しています。

進藤冬華 WEB：https://www.shindofuyuka.com
連絡先：https://www.shindofuyuka.com/contact

プラン：

今回、私は一時的な滞在者として、光州でデートをしてみたいと思っています。

デートはプライベートで親密な関わりですが、同時に、二人で街というパブリックな場所へ出ていくことでもあります。プライベートなものと、パブリックなものとの間を行き来すること。その振り幅が、この企画にとって重要な気がしています。なぜそれが重要なのかは、今はまだうまく説明できません。実際にデートを重ねながら考えていきたいです。

また、デートでは、私だけが行き先や過ごし方を決めることはできません。それは相手との関係のなかで決まっていく、相互的なものです。特に外から来た私にとっては、どこへ行き、何をするかを相手に委ねることが多くなるでしょう。自分の判断をいったん手放し、相手の視点に導かれながら街を経験することが、重要な気がしています。

今回、できるだけ多くのデートをしてみたいと思っています。回を重ねるたびに、個人的な思い出や、街を舞台にどこへ行き、何をしたのかという経験が、私のなかに蓄積されていくでしょう。それらの経験が、光州についての私の見方をどのように変えるのか、あるいは変えないのかは、まだわかりません。

私がここで考えている「デート」は、必ずしも恋愛的、性的な関わりを意味するものではなく、もっと気軽なものです。二人、あるいは少人数で時間を共有し、その人が大切にしている場所や活動に触れることを、ここではデートと呼びたいと思っています。

私は旅行者のように街中のツアーに参加するのではなく、街で暮らしている人々の視点から光州を知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そのための一つの方法として、今回、デートというかたちを選びました。

また、デートは基本的に、少し特別で、楽しい時間でもあります。その人にとって特別な場所や、好きな活動を紹介してもらい、そこに同行させてもらうことができればうれしいです。

参加する人のセクシュアリティや年齢は問いません。もしかすると、相手が犬や猫でもよいかもしれません。英語や日本語を話すことができなくても大丈夫です。言葉が十分に通じないことも含めて、どのように時間を一緒に過ごすことができるのかを考えてみたいです。

美術館へ行く、散歩をする、何かのイベントに参加するといったことのほかに、犬の散歩、スーパーマーケットでの買い物、家族を訪ねること、お墓参りなど、さまざまなデートができたらと思っています。

デートの内容や、その経験をどのように記録するかについては、参加する人と話しながら決めたいです。写真や会話、個人についての情報などをWeb上で紹介する場合には、その人の意思を確認します。すべてを記録し公開することが目的ではなく、記録しないことや、二人の間だけに残る経験も含めて、この企画を考えたいと思っています。

活動の経過はOnlineを通じて報告しつつ、最後には、それまでの経験を受けて、今度は私が企画するデートができたらと思っています。ただ、それがどのようなものになるのかは、今の時点では決めていません。光州での出会いや経験を重ねながら考えていきたいです。

サポート・相談:

光州でデートをする相手を見つけたいのですが、どのような方法が考えられるでしょうか。参加してくださる方を探したり、紹介していただいたりすることは可能でしょうか。

できれば、滞在中に7−8回ほどの方とデートをしてみたいと思っています。なるべくさまざまな世代、性別、生活背景を持つ方と出会えたらと思います。人によっては複数回行ってくれても大丈夫です。参加する方への企画の伝え方や、言語が異なる場合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交通費や飲食費などについても相談したいです。

光州に行くまで、今考えていること:

私は昨年、福岡でレジデンスプログラムに参加する機会があり、そのとき、福岡とアジアの近さを感じました。それは距離的なことでもありますが、近隣のアジアに対する感覚や解像度の違いなのかもしれません。その背景には、歴史的、文化的なこともあるでしょう。

それは北海道で感じていたこととはまったく違っていました。私は、北海道も同じアジアにあるのだから、何かつながりを感じるかもしれないと期待していました。しかし、実際にはそのように考えることは少し難しいと思いました。それは、アジアが単一の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リアルに感じた経験だったのかもしれません。

そうした経験から、滞在後、福岡—那覇—台北—ソウル—釜山をぐるっと一周する旅をしました。日本による植民地化や、それぞれの地域における民主化についての博物館などを主に巡りました。そこから、私のアジアをめぐるリサーチが始まりました。

足早に巡った各地での経験は、今、私のなかで混ざり合っています。それぞれ独立した地域の話というよりも、植民地化と民主化をめぐる歴史や記憶が重なり、まだぼんやりとしている状況です。アジアは単一ではないと思ったのに、旅をしたことで、かえってそのピントがぼやけてしまっている自分がいます。

この感覚が、これからリサーチや制作を進めていくなかで、どのように変わっていくのかはまだわかりません。今回、光州に滞在することは、アジアとは何なのかを考える、もう一つの機会になると思っています。

私は韓国の民主化の歴史に興味を持っています。しかし今回、それを自分がどのように体験するのかを考えています。他者として、そして日本人として、韓国の民主化に関心を持つことは必要だと感じています。それを見つめ、どのように向き合うことができるのか。まず、どのように触れていけばよいのかも、まだわかっていません。この機会を得て、恐る恐るそれに近づいていく、というのが今の感覚です。

リサーチの方法として、本、小説、作品、映画など、さまざまな既存のメディアや表現があることは助けになります。事前にそれらに触れておくことができるのは、ありがたいことだと思っています。

実際に光州では、街をできるだけ見て回りたいです。また、地元の人々がどのように生活し、何を楽しんでいるのか、そのような日常や親密な状況を経験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そうした回り道をしながら、光州に近づいてみたいです。

街を歩き、そこで暮らす人に出会うことで、民主化の歴史を直接扱わなくても、どこかでその歴史や記憶に触れる機会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あるいは、まったく別のものに出会うかもしれません。それが私にとってどのような機会になるのかは、そのときにならないとわかりません。そのわからなさを残したまま、光州に滞在してみたいと思っています。

Fuyuka Shindo — Project Proposal

I am an artist based in Hokkaido, Japan.
Throughout October, I will be participating in a residency at D.A.Aura in Gwangju, South Korea. I am looking for people who would be willing to offer advice on my project, as well as those interested in participating.

Fuyuka Shindo WEB: https://www.shindofuyuka.com
Contact: https://www.shindofuyuka.com/contact

My Plan

During this residency, as a temporary visitor to Gwangju, I would like to try going on dates with people in the city.

A date is a private and intimate interaction, but at the same time, it also means going out together into the public space of the city. Mov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 private and the public—this range feels important to this project. I cannot yet explain very well why it is important. I would like to think about it as I go on these dates.

Also, on a date, I cannot decide by myself where to go or how to spend our time. These things are decided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the other person; it is something mutual. Especially for me, coming from outside the city, I will probably often leave it to the other person to decide where we go and what we do. I feel that it is important to temporarily let go of my own judgment and experience the city while being guided by someone else's perspective.

I would like to go on as many dates as possible during my stay. With each date, personal memories and experiences—where we went in the city and what we did there—will accumulate within me. I do not yet know how these experiences will change the way I see Gwangju, or whether they will change it at all.

The "date" I am thinking of here does not necessarily mean a romantic or sexual relationship. I mean something more casual. I would like to call it a date when two people, or a small group of people, spend time together and I have the chance to encounter places or activities that are important to them.

Rather than joining a tour of the city as a traveler, I would like to get to know Gwangju through the perspectives of people who live there. As one way of doing this, I have chosen the form of a date.

A date is also, basically, a slightly special and enjoyable time. I would be happy if someone could introduce me to a place that is special to them or an activity they enjoy, and allow me to join them.

There are no restrictions regarding the sexuality or age of participants. Perhaps my date could even be a dog or a cat. It is also fine if the person does not speak English or Japanese. I would like to think about how we can spend time together, including situations in which we cannot fully communicate through language.

Besides going to a museum, taking a walk, or attending an event, I imagine many different kinds of dates: walking a dog, shopping at a supermarket, visiting someone's family, or visiting a grave, for example.

I would like to decide together with each participant what we do on the date and how the experience is documented. If photographs, conversations, or personal information are introduced online, I will make sure to confirm the person's wishes. The aim of this project is not to record and make everything public. I would also like to include experiences that are not documented, or that remain only between the two of us, as part of the project.

I plan to share the process of the project online. At the end, based on the experiences I have had, I hope to organize a date myself. However, I have not yet decided what kind of date that will be. I would like to think about it through the encounters and experiences I have in Gwangju.

Request for Support（from D.A.Aura or Someone)

I would like to find people to go on dates with in Gwangju. What kinds of ways might there be to find participants? Would it be possible for you to help look for people who might be interested, or to introduce me to people?

If possible, I would like to go on around seven or eight dates during my stay. I hope to meet people from a variety of generations, genders, and backgrounds. It would also be fine for the same person to participate more than once. I would also like to discuss with you how best to explain the project to participants, how to communicate when we do not share a language, and how to handle transportation, food and drink expenses, and other practical matters.

What I Am Thinking About Before Going to Gwangju

Last year, I had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a residency program in Fukuoka. While I was there, I felt how close Fukuoka is to Asia. I mean this partly in terms of physical distance, but perhaps it also has to do with differences in how neighboring parts of Asia are perceived and understood. There may be historical and cultural reasons behind this as well.

It was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I had felt in Hokkaido. I had expected that, since Hokkaido is also part of Asia, I might feel some kind of connection. In reality, however, I found it somewhat difficult to think in that way. Perhaps this was an experience that made me realize, in a very tangible way, that Asia is not a single thing.

Following that experience, after the residency I made a journey around Fukuoka, Naha, Taipei, Seoul, and Busan. I mainly visited museums and other places dealing with Japanese

colonization and the processes of democratization in each region. This became the beginning of my research into Asia.

The experiences I had while moving quickly through these different places are now mixed together inside me. Rather than remaining as separate stories belonging to independent regions, the histories and memories surrounding colonization and democratization seem to overlap, and things still feel somewhat blurry. I had thought that Asia was not a single thing, and yet, after making this journey, I find that my own focus has somehow become even less clear.

I do not yet know how this feeling will change as I continue my research and artistic practice. I think that staying in Gwangju will offer me another opportunity to think about what Asia is.

I am interested in the history of democratization in Korea. This time, however, I am thinking about how I myself might experience it. As an outsider, and as a Japanese person, I feel that it is necessary for me to take an interest in Korea's history of democratization. How can I look at it, and how can I face it? I do not yet even know how I should begin to approach it. Having been given this opportunity, my feeling at the moment is that I am approaching it cautiously, with some apprehension.

As a way of conducting research, it is helpful that there are already many kinds of media and forms of expression—books, novels, artworks, films, and others. I am grateful that I can encounter some of these before going there.

While I am actually in Gwangju, I would like to see as much of the city as possible. I would also like to experience how local people live, what they enjoy, and these kinds of everyday and intimate situations. I would like to approach Gwangju through such detours.

By walking through the city and meeting people who live there, even without directly addressing the history of democratization, I may encounter its history or memories somewhere along the way. Or I may encounter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I will not know what kind of opportunity this will become for me until I am there. I would like to stay in Gwangju while leaving that uncertainty open.